

# 아카시아 · 아까시 나무 어느게 맞는 말?

일전 조선일보 독자의견란에 어느 독자가 “아카시아를 베어내지”란 글을 올리자 한 양봉인은 이에 반박하여 “아카시나무 경제성 무시못해”란 글을 실었고 조선일보 편집부는 아카시아/아까시나무 이름에 관하여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카시아나무’는 北美가 원산이며, 학명으로는 *Robinia pseudoacacia* L., 英名으로 *False acacia* 또는 *Black locust*라고 한다. 식물학상으로 호주, 아프리카 원산의 ‘아카시아(acacia)’라는 이름의 다른 속의 나무가 달리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학자들은 우리말 명칭을 ‘아까시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아카시아’라고 불려왔고 우리말 국어사전에도 ‘아카시아’로 올라 있으니 있는 그대로 정서적인 이름으로 쓰이고 학술적으로는 ‘아까시나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다.

아까시나무는 어릴때는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고 크면서는 꽃을 피워 향긋한 꽃향기와 정서적인 즐거움과 함께 벌꿀을 생산하고, 잎줄기는 가축 사료로 쓰이는 등 농가에 경제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아까시나무는 1800년대 말에 중국 상해로부터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이래 50-60년대엔 황폐한 임야에 사방조림을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심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다량의 화밀(花蜜)을 분비하여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아까시나무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까시나무가 다량의 뿌리맹아(뿌리가 뻗어 나가면서 줄기를 발생시키는 현상)를 발생하여 인근 조림지를 침범하고, 줄기에 가시가 돌아 아까시나무숲에 출입을 불편하게 하며, 분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보다는 아까시나무의 도입에 일제가 관련돼 있다는 오해때문에 국민정서상 다른 도입 수종보다도 더 큰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국민감정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경제적 논리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임목자원 중에서 아까시나무만한 수익을 안겨주는 수종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까시나무숲 1헥타에서 연간 생산되는 벌꿀생

산의 경제적 가치는 17만원(600억원/35만헥타) 정도로서 이것은 양봉가가 전국 아까시나무 숲에서 벌꿀을 5%정도 밖에 채취하지 못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내버리고 마는 현실에서 따져 본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아카시아꿀 생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아까시나무 조림이 가장 잘된 나라 헝가리의 경우를 보면 전체 삼림면적 중 약 18%에 해당하는 28만헥타의 아까시나무 조림지에서 매년 32만5천 입방미터의 목재를 생산하여 그중 80%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나라의 전략적인 임목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면적의 아까시나무조림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령이 고작 15-20년생이 대부분이고 보면 아직 목재생산성을 따져볼 겨를이 없을 지경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정서가 “쓸모 없는 나무, 亡國樹”라며 “베 없애버리자”며 해마다 되풀이 주장하는 일부 환경론자의 어리석음, 또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여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에서 이제부터는 제발 이런 주장이 그만 나왔으면 한다.

아까시나무는 조림지를 인위적으로 손상하지 않았을 때, 조림된지 10여년이 지나면 뿌리맹아의 생장이 중단되고 기존 조림목의 생장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조림지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조림지에 대한 침범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까시나무에 대한 깊은 오해를 낳게하는 것은 병충해 방제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는 점, 뿌리맹아가 너무 왕성한 것 때문이다. 환경오염지역에서도 잘자라는 나무로 평가되어 조림학적인 이용도가 높은 현실에서 아까시나무의 나쁜 특성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이용하기 위해 벌채한 후 뿌리맹아가 많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다른 경우는 막연히 “일제가 도입한 수종이므로 나쁜 외래수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조림후 5-10년이 지나면서 밀원으로 이용되고 벌채되어서는 질 좋은 목재로 이용될 아까시나무를 보고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 막연히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편집자>